

故雨森東  
原著寶迫  
繁勝刪正

特56

370

# 交隣須知

元



082536-001-9

特56-370

交隣須知

雨森 芳洲 / 著

M16

DAF-0018





大日本帝國元二千五百四十年

雨森 東原 著  
寶迫繁勝 刪正

# 交隣須知

明治十六年

三月五日

出版御屆

白石氏藏版

## 自序

南洋羣島皆受其主對馬政之命其在于朝鮮蓋由浦公  
事之悉學朝鮮語久而有所得因撰一書自天文地理  
時令入學堂草本為讀之役對部品名之目交隣須知  
是也海峽之口每通其管業亦甚廣其厚薄其官  
時被其交誼未全祀密音語亦且不無其所以或為  
或譯訛音未得以為善本自

明治九年重信舊好以來

南洋貿易之通大開人民互相往來於是始知此書多誤  
誤而不足信日常談話應用之用官譯情之使象背油瀝



自序

雨森芳洲翁受其主對馬侯之命駐在于朝鮮釜山浦公  
 事之餘學朝鮮語久而有所得因纂著一書自天文地理  
 時令人事至草木禽蟲之微剖部彙品名之曰交隣須知  
 是朝鮮語學之濫觴也其後象胥輩出雖有所補正如當  
 時彼我交誼未全親密言語亦隨不能精是以或混俚言  
 或雜訛音未得以為善本自

明治九年重修舊好以來

兩國貿易之道大開人民互相往來於是始知此書多誤  
 謬而不足供日常談話應酬之用官深惜之使象胥浦瀨



裕更校訂因五換裘葛校訂漸畢然猶未免國音之差語格之誤蓋校訂之難於交誼親密之日亦尙如此況於百數十年前芳洲翁之著此書其難可想矣余常憾此書之不成因乞諸官正文法刪複雜校寫一再漸爲善本頃友人白石直道視而喜之將以上木於是遂舉原稿以與之顧交際愈密而言語愈精他日有復訂修此書之誤謬者則可以知交際之益密矣

明治十六年孟夏周防後學鷺松寶迫繁勝誌

目次

卷之一

天文	時節	晝夜	方位	地理
江湖	水貌	舟楫	人品	官爵
天倫	頭部	身部	形貌	羽族

卷之二

走獸	水族	昆虫	禾黍	蔬菜
農圃	果實	樹木	花品	草卉
宮宅	都邑	味臭	喫貌	熟設
買賣	疾病	行動		



卷之三

墓寺 金寶 鋪陳 布帛 彩色

衣冠 女飾 盛器 織器 鐵器

雜器 風物 視聽 車輪 鞍具

戲物 政刑 文式 武備 征戰

飯食

卷之四

靜止 手運 足使 心動 言語

語辭 心使 四端 大多 範圍

雜語 逍遙 天干 地支終

交隣須知卷之一

雨 森 東 原著  
寶 迫 繁 勝 剛 正

天文

天ノ事ヲ知ントテ天文學ヲ學ビマス

日ガトク正午ヲ過ギタレモクモリテト

クト知レマセヌ

月ガ明ニノ寂イ程ニ咄ドモ致マセウ

星ガ天ニ集リテ丁度紐ノ切レタ眞珠ノ

ヤウニゴザル

하늘 일을 알러 허고 天文學 天文學을 비 흠네다

히가 불셔 오시를 넘 잇습네다 마는 흐리니즈  
午時

세 모르겟소  
細

들이 볼그니 심심헌디 말습이나 허옵시다

별이 하늘의 종종 허엇스니 맛지 문문 어진진  
種々

주스오  
珠



參星ト商星ハ互ニ見合ヌ星ト云ヒマス  
 日蝕ハ大抵朔日ニゴザリマス  
 月蝕ハ多クハ十五日ノ夜ニアル  
 日ガ暈ヲキタ  
 月ガ暈ヲキマシタ  
 窓ガ明ルイ故東ガ白ンダサウニゴザル  
 暗イ夜ハ明松ヲ燈シテ廻ラレヨ  
 曇リテ雨ガ降りサウニゴザル  
 晴レタニヨリ一兩日照リテ重テ雨ガ降  
 ラバヨウゴザリマセウ

參星 商星  
 日蝕 大抵初  
 月蝕 大綱  
 日蝕ハ大抵朔日ニゴザリマス  
 月蝕ハ多クハ十五日ノ夜ニアル  
 日ガ暈ヲキタ  
 月ガ暈ヲキマシタ  
 窓ガ明ルイ故東ガ白ンダサウニゴザル  
 暗イ夜ハ明松ヲ燈シテ廻ラレヨ  
 曇リテ雨ガ降りサウニゴザル  
 晴レタニヨリ一兩日照リテ重テ雨ガ降  
 ラバヨウゴザリマセウ

月ガ窓ニ移リマシタ  
 日ガ暮タ故エ夫迄ニノ歸ラレマセヨ  
 銀河水ハ天ノ真中ニヒロガツテナル  
 曇リテ日ガ薄暗クテ明朗ナリマセヌ  
 カゼガ惡イ故船ガキマイカト思ヒマス  
 ヲナガ吹クカラ極メテ船ガマヰラウ  
 西カゼガ急ニ吹キオコリマシタ  
 ハエガ吹ケバ人ノ身ヲ害シマス  
 北カゼガ吹ケバ木ノ葉ガ落ナマス  
 ハエコナガ吹ニヨリ止メバヨウゴザル

둘이 창 의 빛 취 엿 슌 네 다  
 날 이 어 두 워 쓰 니 그 만 하 고 도 라 가 음 시 요  
 은 하 슈 는 하 늘 가 온 디 빛 취 구 나  
 銀 河 水  
 흐 리 니 날 이 팀 팀 하 야 명 낭 치 아 니 허 오  
 沈 々 明 朗  
 비 름 이 사 나 오 니 비 가 못 나 올 가 시 푸 외 다  
 동 풍 이 부 러 쓰 니 응 당 비 가 오 개 싸  
 應 當  
 서 풍 이 급 히 이 러 나 오  
 西 風 急  
 남 풍 이 불 면 사 름 의 몸 에 해 롭 소  
 南 風 害  
 북 풍 이 불 면 나 무 남 히 썩 러 지 읍 네 다  
 北 風  
 동 남 풍 이 부 니 굿 치 면 돛 겹 소  
 東 南 風



北ゴケカフクニヨリ上ニ漂流シタ船カ  
マヰリサウト思ヒマス

ハエ西ゴ吹ニヨリ下モニ漂流シタ船カ  
マヰリサウトニゴザル

アナシガ吹ニヨリ船ノ入テ往ニ宜イ

横ニ吹クカゼハウチバニフイテユソ船

ノ往ニヨウゴザル

向フカゼデモヒドクフカヌニヨリ開イ

テデモ往キサウニゴザル

オヒテガ續テ吹カラ船ガ参ウト思マス

동북풍이부니좌도에포풍한비가올뜻시푸  
외다 東北風 左道 漂風

서남풍이부니우도에블녀가던비가올뜻허  
외다 西南風 右道

서북풍이부니비드러가기돛깃지  
西北風

마루부는북풍은덜부러야비가기돛깃습네  
다

역풍이라도미우부지아니하니비스기노와  
逆風

도갈뜻허오

순풍이년허여부니비나올샤시푸외다  
順風 連

風ガ止ミテ靜カニゴザル

ナギノ日ニ海邊ニ往テ遊バ面白イ

辻風ガ吹ニ付目ニユミガ入テ難義ナ

急ナ風ガ吹テ何物デモオレサウニゴザ

ル

雪ガ澤山ニ降りテ積リタニヨリ山々家

々ニ白遮日ヲ張タヤウニゴザル

雲ガ集テ雨ガフリサウニゴザル

雨ガフリテ晴タニヨリ草木ガ輝キマス

夕立ガキサウニアル

北風이긋치니종용허외다  
從容

잔풍한날에 해변의가서놀면즈미잇다  
殘風 海邊 滋味

회리北風이부니눈의몬지드러간망허구나  
回忙

급한北風이부니아모거시나부러질샤시푸  
急

외다

눈이만히와셔싸여쓰니산산집집의백차일  
山々 白遮日

친듯허외다

구름이모이고비오실샤시푸외다

비오다가개이니초목이빛나겟소  
草木

소나기올샤시푸다



電ガ取取メ前ニフレバ穀物が皆落ナル

우박이 추슈전의 오면 곡식이 다 떨어 치겟다

霰ガタントフリテ丁度米ノフルヤウニ

雨雹 秋收前 穀食

ゴザリマス

외다

長雨が續カラ最早晴タラバヨカラウ

장마가 디리허니 그만개이면 도흘 뜻하다

細雨が注イデ野菜が生キ出マス

長霖 支離 셔우가 뿌리니 나무리사라나옴네

雪ヲ六花ト云フ

細雨 눈을 녹화라허니라

霜ガ疾降タカラ漸々日ガ寒カリマセウ

서리가 불셔와 쓰니 점점 날이 춥스오리다

霜ガ澤山ニ降りタカラ木ノ葉ガ黄ミテ

서리가 만히오니 나무 남히 누르러다 떨어 치

皆落ナル

겟다

草ノ葉ニ露ノ浮タノハ見事ニゴザル

풀남헤이슬이 미친거시보암 즉하다

霧ガ夥シウ懸タニヨリ對馬ノ山ガ見え

안개가 뒤오세여 쓰니 뒤마쥬산이 보지아니

マセヌ

허옴니다

ヤケガ夕ベト朝ニ懸テ朝ヤケハ雨ガフ

놀이저녁과 아침에 쓰니 아침에는 비오고

リ夕ヤケハ晴ル、ト云ヒマス

저녁 놀에는 개인다 허옴네다

雷聲ガ震動スルカラ雨ガ澤山降マセウ

우레 소리가 진동하니 비가 만히오리다

電リガシテ暗イ處ニチレバビカ〜ト

번개 허니 어둔데 잇스면 번쩍번쩍하여 무섭

シテ恐シウゴザル

스외다

霹靂ノ聲ハ恐シウゴザル

霹靂 소리 가 무섭스외다

蠶ノ上ル前ニ雷ガ鳴ハ皆捨リマス

누에 올니 기전에 떠동허면 다 버리옴네다

シンドウト云フ言ハ何物デモ集リテ狼

진동이란 말은 아모거시라도 만히 모여서 텨



へ驟グナシンドウト云ヒマス  
 虹ガ立テ色ガ五色ノ驟ノ様ニゴザル  
 早リテ穀物ガ皆枯レマス  
 天氣ノ晴テカラ無用ノ雨傘ヲ持テ來タ  
 牽牛ハ織女ト兩主ナリト云ヒマス  
 織女ハ天ニテ布織ヲナスルト云ヒマス  
 七星ハ運數ヲ守ルト云ヒマス  
 颶風ハ颶々ト吹ク風デゴザル  
 ハヤテガオコレバ恐シイ  
 急ナ雨ガ注グヤウフル

빙여요란헌거슬진동이 라허옵네다  
擾亂 震動  
 므지개셋쳐쓰니 빗치오식이 어린듯허외다  
五色  
 마무니곡식이 다물나가옵네다  
穀食  
 날이개인후에부질업시우산을가져왔고나  
後 不質 雨傘  
 견우는직녀와양주이라허옵네다  
牽牛 織女 兩主  
 직녀는하늘에서포쓰기를흔다허옵네다  
織女 布  
 칠성은운수를직힌다허옵네다  
七星 運數  
 표풍은삼삼히부는바람이로세  
飄風 颶々  
 폭풍이니러나면무셔오니라  
暴風  
 급흔비가붓드시온다  
急

名山ニ雨ヲ祈リニ往キマセウ  
 瑞氣ハメデタイ氣運ヲ云フ言デア  
 霧ハ烟デモナク霧デモナケレヒ日ノ光  
 リヲ蔽ヒマス  
 二十八宿  
 彗星ヲ朝鮮ニテハ尾星ト云ヒマス  
 南斗星  
 北斗星  
 海ニ霧ヲ多イ  
 風ガ換タカラ船ヲ仕立ルカ

명산의비를빌나가옵세  
 名山  
 서기는아름다운기운을니른말이라  
瑞氣 氣運  
 애는연기도아니요안개도아니로되날빛출  
霧 烟氣  
 마리옵네다  
 이십팔슈  
二十八宿  
 혜성을조선에서미성이라허옵네다  
彗星 朝鮮 尾星  
 남두성  
南斗星  
 북두성  
北斗星  
 바다에안개가만커든  
 환풍호기의비질허느냐  
換風 質



地震がオソロレウゴザル

地震이 무섭스외다

時節

春ハ百草ガ生シテ總テノ種ヲ植ル故エ

봄의는빅초가나고온갓씨아슬심으니  
四時 百草

四時ノ中ノ第一ナル

중의 으뜸이요

夏ハ印度地方ハ最モ暑クテ堪ヘラレヌ

여름은 인도디방은 마장덥고 견디지 못한다  
印度地方

ト云ヒマス

허옇네다

秋ハ日モ涼クシテ露ガヨケイニ盛リマ

마올의는 날도서늘하고 이슬이 만히 치옴

ス

네다

冬ハ甚寒イニヨリ柴炭ヲ無限遣ヒマス

겨울은 심히 치우니 시탄을 무한히 쓰옴네다  
甚 柴炭 無限

今年ハ餘ノ事ハセズン詞稽古斗リシタ

올은 다른일 아니하고 말 공부만 하얏다  
工夫

ホウチンガ續イテ萬民ガ太平ニクラシ  
マス

풍년이년하여드니 만민이 태평으로 지내옴  
豊年 連 萬民 太平

凶年カニガシウレテ百姓共ガ暮シ

흉년이 참혹하니 백성들이 못살게 되었슴네  
凶年 慘酷 百姓

得ヌヤウニナリマシタ

네다

今年ハ大豊年ニナリテ處々ノ修補ヲセ

금년은 대풍년이 되어 처처에 슈보하랴 허옇  
今年 大豊年 處々 修補

ウト存シマス

네다

去年ノ農事ハ相應ニ有タサウニゴザル

거년 농사는 무던하던가 시푸외다  
去年 農事

明年ノ時節ハヨクデキヨウト云ヒマス

명년시절은 잘되리라 허옇네다  
明年 時節

翌年迄成マスマイカ

이름히까지 못허오릿가

時ガ後レルユエ早ク濟シテユカレヨ

때가느자가 매어서 못고가소



時節ガタテナホサバサゾヨカロウ  
 日ガ寒イニヨリクツロニ入ラシヤレヨ  
 涼イニヨリチムリガキタ  
 冷ケレバ濕ガ出ル  
 天氣ガムシマス  
 温デヨウゴザル  
 今日ハノドカニゴザル  
 甚ダ暑クシテモヤクシマス  
 餘リムスカラドウモタヘラレマシヌ  
 世上ハ大槩太陽曆ヲ用キマス

時節이회복하면조기도흘사  
 時節 回復  
 날이추니방에드러옵소  
 房  
 서늘하니즘이온다  
 冷 濕  
 닝면습이나느니  
 날이훈증허외다  
 燠 蒸  
 다스허여뎛스외다  
 오늘은온화허외다  
 温和  
 심히더우니약약허외다  
 甚  
 하무더우니참아견디지못허겐네다  
 세상은대개태양曆을쓰옵네다  
 世上 大槩太陽曆

太陰曆ヲ用井ル國ハ稀ニゴザリマス  
 正月ハ十五日ガ第一デアル  
 二月ニハ寒食ガアル  
 三月三日ハ大イナ名日デアリ  
 四月ニハ八日ガアル  
 五月ハ端午ガアリ  
 六月十五日ヲ流頭ト云フ  
 七月ニハ七夕ガアリ  
 八月ニハ秋夕ガアル  
 九月九日ヲ重陽ト云ヒ

태음력으로써는나라흔드르개야잇습네다  
 太陰曆  
 正月은상원날이웃승이요  
 正月 上元  
 이월에는한식이잇느니라  
 二月 寒食  
 삼월삼일은큰명일이요  
 三月三日 名日  
 4월에는팔일이잇느니라  
 四月 八日  
 오월은단오가잇고  
 五月 端午  
 6월 보름날을뉴두라허느니라  
 六月 流頭  
 칠월에는칠석이잇고  
 七月 七夕  
 팔월에는추석이잇느니라  
 八月 秋夕  
 9월구일을중양이라허고  
 九月九日 重陽







下絃ハ後ノ弓張月デゴザル  
 年内ハ忙イカヲ年明テカヲ逢マセウ  
 一年交代デゴザル  
 一昨年来マシタニ疾交代前ニ成マシタ  
 明後年ゴロスミマス  
 社日ハ春秋ニアル  
 今年切ノ約條ヲ五年延ニシテ往キマス

하현은 동편반돌이올세  
 下絃 東邊半  
 세전은 다스하니세후로뵈시다  
 歲前 多事 歲後  
 주년교테로세  
 周年交遞  
 지작년에나왔더니볼서파만이되엇슴네  
 再昨年  
 후명년봄맞개슴네다  
 後明年  
 샤일은 춘추에인니라  
 社日 春秋  
 년한약도를오년퇴팅하야가옵니  
 年限約條 五年退定

晝 夜

晝ハ三四月ガ第一ナガイ  
 夜ガ短カイ故エ朝寢ヲヨクシマス

나 존삼스월이테일기외다  
 三四月 第一  
 밤이저르매아침잠을잘자옵네다

朝ニ早く起テ對馬ナ見レバ雲ガ丁度屏  
 風ヲ立タヤウニゴザル  
 夕方ニナレバイツモ歸ヲウト云ハレテ  
 夫ハドウシタコトデゴザルカ  
 今夕咄ナリヒスル様ニオ出デ被成マセ  
 昨夜ハ緩リト咄シテキマシタ  
 日ノ暑イハ陰ニ座レバキミガヨイ  
 陽メガ温イカヲ座ヲ敷テ咄ヒシマセウ  
 曉ニ早くオキヲレマセ  
 暮ルマデ遊デ往ニヨリ多幸デゴザル

아침에일즉나리나더마주를보면구름이맛  
 晨 屏風 春 친듯허외  
 對馬州  
 저녁새되면리양도라가고자하시니그엇편  
 每樣  
 일이요  
 오늘저녁에말이나하개오쇼셔  
 어제밤은종용이말슴허고왔습네다  
 從容  
 날이더올제는그늘에안즈면시원허느니  
 벗치듯뜻허니자리를쓸고말이나허세  
 새벽에일즉나리남소  
 저무도록놀고가나다행허오  
 多幸



明日ハ早ク入テオ出被成様ニ被成マセ  
 何ノ譯デ簡様ニ遅ク參ラレマシタカ  
 暗イ夜ハ道往クニ恐シウゴザル  
 明ルイ處デ仕事ヲスルヤウニナサレヨ  
 月ガ明カナニヨリ思郷之心ガ増シマス  
 玉ガ餘移リアマバユクテ直グニ見ラレ  
 マセヌ  
 此品ガ濕リタカラ陽タニ置テ乾カセヨ  
 夕陽ニ飛デユク鳥ノ色ハ較ル物ガゴザ  
 リマセヌ

來日 來日 平明 에 드리오 | 리다  
 何ノ譯 緣故 로 이리느개야 음든고  
 暗イ夜 緣故 은 길 가 기 무섭테  
 明ルイ處 思郷之心 이 터 허외다  
 玉ガ餘移 思郷之心 이 터 허외다  
 此品ガ濕 果然 반갑스외  
 夕陽ニ飛 比 夕陽 夕陽 세느라 가 는 가 마 귀 빛 촌 비 혈 새 시 업 습  
 리마세ヌ

明日未明ニ入テ來マセウ  
 久シ振ニマエエテ誠ニ悅バンウゴザル  
 此本ハ遅ク寫テ遣ハスニヨリサソ心ナ  
 ク思レマセウ  
 速ニ致サントスレハ風邪ガ甚クア只今  
 コソデキマレタ  
 一寸來テ寄テ往カレマセ  
 急ニ書ントスレハ問答ロクデキマセヌ  
 先刻入テ往テ暫クシテ出テ來ルニヨリ  
 惟ウゴザル

來日 來日 平明 에 드리오 | 리다  
 久シ振 果然 반갑스외  
 此本ハ遅 無心 이 최은터 드 벗겨 보 내 니 죽 히 무심 이 너 기 시  
 速ニ致 感氣 大端 수 이 흥 고 저 허 되 감 괴 가 대 단 허 여 이 제 야 되  
 一寸來 暫間 잠안 와 든 터 가 쇼 서  
 急ニ書 急 급 히 쓰 노 라 허 되 밋 처 못 되 엇 습 네 다  
 先刻入 殊常 악 가 드 러 갓 싸 가 이 으 허 여 나 오 니 슈 상 허 외  
 惟ウゴザル



嚮ニ申上ゲテ言ヲオ忘レナサレマヌナ  
頃日ハ厚ク款待ナサレテ辱ク存シマス  
近比ヨリヤウ〜出入ヲ致シマス  
暫時ノ閒ニ詩ヲ和答スル故エ敏捷ナ子  
ヲゴザル

昔ノ法ヲ見聞シテ先信義ヲ習シマセヨ  
今時ハ專ラ愁心斗リ出シテ仕方ガナイ  
今日ハソワ〜致シマス  
夜間ニ安寧ヲ多幸ニゴザル  
明日ハ國忌ヲ出來マセヌ

其様ニタベテモ翌日迄醉タコハナイカ  
明後日ハ雨ガフリテモ下リマキマセウ  
シアサツテハ宴享デゴザリマス  
昨日ハ出テコウト云レテ終ニオイデナ  
サレヌ夫ハドウレタコデゴザルカ  
一昨日ハ珍イ物ヲ下サレタニヨリ皆一  
同ニ澤山ニタベマシタ  
朔日ハ道ニテナヨト逢ヒマシタ  
二日ハ忙イ日デゴザル  
三日ハ遊デ往マシタ

嚮者 嚮자에 슬은 말슴을 잊지 마옵소서  
저 증세 장히 더접하시니 감사 하여이다  
요 소이 부터 게 오 출입을 하였습네다  
頃刻 頃刻 사이에 글을 화답하니 민첩한 아희 올시  
다 和答 敏捷  
법 法 법을 듯보와 위 선신의 효를 효측 하옵소  
이 제 시절은 전 허욕심만 버니 홀일업다  
오늘은 총총 허옵네다  
밤 소이 안녕 하스니 다행 하외다  
너 일은 국忌니 못하게 하였습네다  
來日 國忌

그리 먹어도 이튼날까지 취한 일은 업느냐  
모레는 비가 올찌라도 느려오리다  
클 피는 연향이 올시다  
어제는 나 오마 허시고 종시 아니 오시니 그 무  
손일이요  
그적게는 귀헌 거슬 주시니다 | 흥가지로만  
히 먹었습네다  
초하론 날은 길에서 잠만 만나 보았습네다  
초잇든 날은 분요헌 날이 올세  
초사 혼날은 놀고 갔습네  
初 初 初



四日ニ極メルヤウエナサレヨ  
 五日ハ家ニキマレタ  
 六日ニキハマリニナリマシタ  
 七日頃ハ左右ガアリマセウ  
 八日ニ延ビマシタ  
 九日ニ移徒致シマシタ  
 十日ハ隙ナ日デゴザル  
 廿日ハ慶宴ヲセウト存シマス  
 新月ハ初テ生ズル月ヲ云フ  
 何日ニ發程セウトナサルカ

初 나 혼날 노정 허게 허옵소  
 定  
 初 닷신날은 집의 이섯소  
 初 옛신날 노완정이 되엿습니다  
 完定  
 初 일엿날 썸괴별이 잇소오리  
 審別  
 初 여드렛날 노물렛습데  
 初 아흐렛날 이사 허엿습네다  
 移舍  
 初 열흘날은 한가 혼날이오니  
 閑暇  
 스므날은 경연을 허라허오니  
 慶宴  
 미월은 초싱들을 니름이라  
 眉月 初生  
 어네날 발정 허라허시오  
 發程

其日ハ仕合ノヨイ日デア  
 滿月ヲ望ト云ヒマス  
 晦日ハ其月ノ終ル日デアリマス  
 師走ノ晦日リハ祝辭モ云ヒ魔拂ヒモス  
 ルヲ儼ヒトイヒマス

그날은 유복한날이라  
 有福  
 만월을 보름이라 허옵네다  
 滿月  
 그믐날은 그달 마지막 날이오니  
 그믐날은 그달 마지막 날이오니  
 致賀  
 첫날 그믐날은 치하도고 마고 치는 거슬나  
 魔鼓  
 라 허옵네다  
 儼

除夜ハ其年ノ終ル日ノ夜デゴザル  
 夏至ハ一年中ノ日ノ一番長イキシヤ  
 立春ハ吉慶ノ詩文ヲ書テ柱毎ニ張ル  
 十日頃ニ回答ガ參マセウ  
 十日十五日ノ間ニ延ヘウ

除夜  
 제야는 그히 마지막 날 밤이 올세  
 하지 는 일년 중 날이 제일 긴 새라  
 一年中 第一  
 立春은 길경시문을 써서 기둥마다 부치니  
 立春 吉慶詩文  
 초순에 회답이 오리다  
 初旬 回答  
 旬望 旬間  
 旬望 旬間  
 旬望 旬間



廿日前ニナルノガ廿日過ニナリマシタ  
 廿日晦ノ間ニ始テハドウデエザラウカ  
 月々ニツグナフモノガ多ウゴザル  
 朝飯前ニ參ラウトノ飯過ニナリマシタ  
 初更スギニイツモチマス  
 晝ナカ仕事シテマヰリマシタ  
 日ガ短カウテ困リマス  
 日ガ漸々長クナリテユキマス

方位

東山ニ上リテ日ノ出ル様子ヲ見マセウ

념전에 될거시념후에 되엿습네다  
念前 念後  
 념회간에 시작하면엇셔허오닛가  
念晦間 始作  
 두돌이 무는것시만쓰외다  
 식전에 오랴하다가 식후되엿습네다  
食前 食後  
 초경후에 미양자옴네다  
初更後 每樣  
 혼나 즐일허고 왓습네다  
 날이 저르니 민망허오  
懶忙  
 날이 점점 기러가옴네다  
漸々

東山에 올라히돈는 양보옴세  
東山 樣

西山ニ日ガ傾イタ  
 南方ニ頭ヲ置テ寢レバヨイト云ヒマス  
 北ヨリクル雁ノ聲ハ旅ノ思ヲマシマス  
 左ノ手テ招ケ  
 前ニ立ズシテノケ  
 後便ニユトツケテ遣シマセウ  
 海邊ニ往テアソバウ  
 オモテガウツクシイ  
 右ノ手テフレ  
 カドヲ廻テ往マセウ

서산에히저간다  
西山  
 남방으로머리를두고자면똥타허옵네  
南方  
 북으로오는기러기소리는직회를더허옵네  
北 客懷  
 왼손으로손쳐라  
 압페섯지말고물너셔라  
 후편에부쳐보너오리  
後便  
 바다의가셔노자  
 것치곰다  
 올흔손으로저어라  
 모롱이로도라가세



山下ニ杵木ノ無イヤウナモノデゴザル

内ハ損シハ致シマセヌカ

ウナガキツウカタイ

窓ノスキカラノゾイテミヨ

山ト川ガ隔リタニヨリ往キ難ウゴザル

一ト坂掩フタ故エ通フニ迷惑ニゴザル

ヒオヒセヨ

山ノウヘニアガレバ四方ガ皆見エマス

此家ノ中ニ何がアルカ

下ノ家ニ誰ガ在マスカ

山 산밧테방아쌩이 놀기 又 소외

안은 상치 아니 하얏습니 닛가

속이 미오든 든 하다

창틈으로 엿보와라

山 산파물이 막겨 쓰니 가기 어렵소외다

혼고 개마력 쓰니 든니 기민 망허외

懶忙

차일 처라

遮日

외우 희오르면 소방이 다 뵈옵네다

四方

이 집속에 무이시인는 고

아랫집에 누구 계시냐

中ハサレツカヘマセヌ

外ニ出テ往カシヤレヨ

幾角カミラレヨ

四方ガ皆海デアルカ

四面ガ暗イ故雨ガ澤山降ウカト存マス

中間ニテ言葉ナカザラレマスナ

アテドノナイ言ヲ云フナ

가 온데는 관계치 아니 허외

關係

밧게나 가옵소

몇모인가 보옵소

소방이 다 바다인가

四面 소면이 어두니 비가 만히 올싸시 푸오

중간 의셔 말쑤미지마오

공중 빈말마게

空中

# 地理

地理學ヲ學ビマス

山勢ガ壯ナレバ水ガ多イト云マス

地理學 디리학을 비옵네다

山勢가 웅장하면 물이 만타 하옵네다



平地가廣フテ山が見エマセヌ

野ニテ遊ビマセウ

里ハツレニ出テ獵ナリヒ致シマセウ

ハゲタ山デアル

イク峯バカリアルカ

トウゲテ越テ往カレルカ

巖ノ上ニ水ガハエテ恠シウゴザル

穴ガ埋ツタ

穴ノ内ガウスグラウゴザル

山ノ崎ガアリテ遠イ所が見エヌ

평지가너르니산이되지아니허오

들에서농세

외에나가산양이나허옵세

버서진산이업도다

멧봉이나되는야

능을넘어가옵는지

바위우희남기나니이상허오

굴렁이메엿싸

굴속이깜깜허오

산뜻치잇서먼데가되지안는다

岸石ガ甚險シイ

ヨクウメヨ

坂ヲ越テ通ハレテ疲レラレマセウ

岸ガ高クテ下タルニセハシイ

原ガ高フゴザル

丘ガ皆クツレマシタ

シヤリヲ拾テシケ

水邊ニ魚釣ニユカウ

磔デウテ

土ヲフメ

석벽이심히험허구나

잘메여라

고개넘어든니시니又부실듯허외다

언덕이높파느리기절박하다

언덕이높푸외다

두덤이다무허젓슴네다

돌지악을주어다가너러라

물사에고기낙그라가자

들몽이로쳐라

홀글니겨라



灰ガ立ニヨリ戸ヲダテヨ

塵ノ立ヌダケ雨ガフリマシタ

炭ガナケレバ冬堪ラレマスマイ

塵ガアルニヨリハイテステヨ

風ガキツウ吹ニヨリ砂ガトビマス

小砂ハ風ガ少シ吹テモトブ

ドロガトンダ

カワイダ

穴ガ幾穴ホドアルカ

石ガ冷イニヨリ石ノ上ニスハルナ

지 놀니니 문다 두라

문지 잘만 침비가 왓습네다

숫업스면 겨울의 어려오리

티끌이 이시니 쓰러 버려라

바람이 리오부니 모래가 놀니 습네다

세사는 바람이 조금 부러도 놀니고니

진흙기웁다

물난다

궁기 멧궁기 나잇느냐

돌이 츠니 돌우희안싸마오

盆石ニ木ヲ植エヨ

花ヲ見ラレヨ

方々谷々ヲ尋テテ見ヨ

庭ニ花ガ咲タニヨリ見物ナサレマセ

水端ノ田ニ堰キヲ高ク築バヨウゴザル

谷アヒノ風ガキツウゴザル

日ガ寒ケレバ岸ノ下ニ差懸テ結ンテ寢

ルト云フコモアル

溜リ水クメ

此田ハ窪タニ付水ガ溜リサウニゴザル

피석의 나무심거라

화초보시오

방방곡곡을 츠자보와라

후원의 꽃치켜쓰니 구경허옵쇼셔

물々논에 방축을 높피쓰면 돛스외다

골바람이 어렵스외다

날이 츠면 언덕밧티움을 뭇고 잔단말도잇느

나라

피인물기러라

이논은 오목허기에 물이 피일싸시푸외다



地圖ヲ見レバ大綱ハ知レマス

路程記ヲ持テキルカラ里數ハレレル

ヤマンホガデダ

廻リ路ヲ廻リテキテ後レマシダ

筋違ヒ道ハセバウゴザル

築山ヲ池ノ中ニ集テ見掛ガヨウゴザル

### 江湖

江ガ氷タカラ上ヲ步テ往ク外ハナイ

海ヲ只管往來ナサレテ誠ニ御面倒デゴ

ザリマセウ

지도를 보면 대강은 아옵느니

大綱

노정기가 저쓰니니 수는 아느니라

路程記 里數

삿타 밧다

沙汰

만노로 도라오니 느릿슴네다

彎路

샤로는 좁스오니

斜路

석가산을 못가온데 모와 노니 보기똥스외다

石假山

강이 어럭쓰니 빙등 흘밭게업다

氷登

바다를 갓삼건너 단니 시니 파연피로오시리

果然

다

此河ノ深サガイカホドアラウカ

今島ニ歸ヘリ往カレルニヨリ残り多サ

ガ限リゴザリマセヌ

我々ハ川ヲ渡ルモ太義ニ思ヒマス

水ノ深ク溜リタルヲ澤ト云ヒ少シ溜リ

タルヲ溜リ水ト云ヒマス

淵ニ魚ノ遊ブヲ見ラレマセヨ

池ニ魚ノ飛ブ様子ナミルニ最モ宜シイ

浦住ノ者共ハ游ギノデキヌ者ハナイ

渡シテ渡ルキ風ガ惡ケレバ心地惡ウゴ

이물이 깊기가 얼마나 허릿가

이제 섬으로도라가시니 섬섬하기마이업스

외다

우리는 내를 건너기도 어럭워 허옵네다

물이 깊피피인거슬 못시라하고 조금피인거

슬웅덩이라 허옵네다

못세고기노논것보옵쇼셔

못세고기 뛰는 양을 보니 마장돏타

樣

리사놈들은 혜염을 못허는놈이업는니

누루건넌썩 바람이사나오면 괴운이거북허

氣運 去福



ザル

瀬ハ水ガヒドウ淺ウゴザル

溪川ノ端ニ座リテ足ヲ浸テ酒飲バヨイ

泉ガワキマス

井ノ水ハ汲ホドスム

温泉ハ冬デモ沸イテフシギデゴザル

水盛リテユヨ

海原ガアライニヨリ船ヲダスナ

此河ノ水源ハ是ハ幾里計リアルカ

アノ眞中ハ水ガ幾筋ホドニナリマスカ

오

여울은물이미오얏습네다

시내 々의안자발자무고술먹으면도흐니라

심이솟습네다

우물은깃도룩물그니라

온정은겨울에도설으니고이허외다  
 温井 惟異

물셔오너라

물썰이홍용허니비를내여뜻치마라  
 凶湧

이물수원은예서멧니잇느냐  
 水源

저한가온데는물이멧썰기나되는고

氷ノ上ヘハスベリテアルカレマセヌ

水ニフミノコナフテスバリマシタ

潮ガ滿マシタ

小潮ハ上下弦ノ時ヲ云ヒシモノシヤ

日ガ寒クテ氷ヲントスルヲ薄氷ト云ヒ

マス

汐ガ干タカ見ラレヨ

汀ニ波ガドンクウナマス

洲ハ江ノ間ダノ島デアル

渡中コユマシタカ

어림우는밋그려워둔니지못허옵네다

물의실족허여밋그려젧습네다  
 失足

물이밀엇습네다

조금은상하현새를니르미라  
 上下弦

날이치워어름이얼냐허는거슬성에라흐옵

네다

물이겨는가보소

사딩에물썰이특특치옵네다  
 沙汀

주는강스이에섬이니라  
 洲江

슈중넘엇습는가  
 水宗



ミゾサラヘヨ

水灣ガヒロウゴザル

瀧ノ落ルヤウスガサマシイ

水ガ餘リ清イカラ大ナ魚ガ居マスマイ

海邊ヲ邊リト云又器物ニモ周リガアル

カスガ浮イタカラシツトオケ

酒ガ濁タニヨリ德利ヲ居エテオケ

波濤ガ起ツタ

水道ヲ浚ヘテユソ家ガ損ジメ

水損デ道ヲ新ニ作リマシタ

기천을처라

물구비가너르외다

폭포<sup>樣</sup>는<sup>雄壯</sup>려지는양이웅장하다

물이하물그니큰고기업소오리

海邊<sup>海邊</sup>마이라도허고또그릇세도마이잇셔니

씩기셔쓰니<sup>瓶</sup>만이두어라

술이흐리니<sup>瓶</sup>병을안쳐두어라

과도가너리난다

波濤<sup>傷</sup>를과야집이상치아니허느니라

水道<sup>水患</sup>으로<sup>傷</sup>하야길을새로닷갓습네다

暗礁ハ恐シウゴザル

江ノ水ハカラクアリマセヌ

水貌

水ガ漏ニヨリ破レタカ見ヨ

ユレガフエタガ水ニツケタカ

水ガ漏カミラレヨ

溢レルカラソレマデニツゲ

手ニ水ガシタダ

シメリタニヨリ陽タニホセ

深イ心ヲ誰ガシラウカ

초석은무섭소오니

江<sup>礁石</sup>물은쓰지아니허오

물이식니<sup>水患</sup>해여젓는가보와라

이거시부러쓰니물의돛갓셔냐

물이솟는가보소

넘으니그만부어라

손의물이듯는가보나

저저쓰니벧테물여라

깊은<sup>水患</sup>마음을누알니



水ニツケヨ

水汲デツゲ

庭木ニ水汲デ注ゲ

此水ノ廣サハスサマシウゴザル

顔アラヘ

水ノ流レテ往ク音ハサビシウゴザル

桶ニ水モレ

游チスル様子ヲ見ルニ誠ニスグレタ

水ニ泡ガ立ツタ

水ニハマツタモノヲ皆スクヒダセ

물에 돛가라

물기러 부어라

씻남게 물써다가 썩러라

이물너뵈는 장허외다

노씨서라

물홀너가는 소리는 처량허외다

통에 물부어라

해염하는 양을 보니 과연 용하다

물검품이인다

물에 싸진 거슬다 건져내여라

堰ガ潰レテ水ガ出マス

水中ニ沈ンデモ游グニヨリアヤシイ

雨サヘ急ニフレバ水玉ガ立チマス

アノ水ニ浮ミ往クモノハ何カ見ワケヨ

心ノ淺イ人デゴザリマス

龍宮ハ龍神ガ多イサウニゴザル

十二月ノ雪ヲ貯ヘテ置テ夏ツカハウ

其野菜ニ米ノトギ汁ナリ注ゲ

방축이 허여 저물이 나네

물속에 즐기여 도해염하니 이상허다

비긋급히 오면 물쌍을 이지네

저물에 써가는 거시 무어신고 슬퍼보라

마음이 옛튼 사람이 올시다

龍宮은 동신이 부지기수로 잇는가 보외다

龍宮 龍神 不知其數

그 물에 미감슈나 썩러라

舟楫

舟乘リテユカウ

비투구자



帆ヲカケヨ

檣ガアマリ太イ

櫓ヲオセ

薪ツンダ筏シヤ

柁デ橋ヲワタセアガラウ

碇入レヨ

舟ツケヨ

早ヤ船ニ乗テ先ニユカウ

ツナヤレヨ

皆渡シテキタカ

돛슬드러라

돛머가너무크다

노를저어라

나무시른새라

비기목으로드러노아라느리자

돛주어라

비대여라

빠른비투고몬저가자

줄주어라

다건너왔느냐

オモテニ立テ船着ル所ヲワキマヘヨ

船ノ舳ニオケ

小船ハ風ガナイデヨソヨウエザル

帆ヲオロセヨ

樓グラニアガウ

船乗テ來テ船酔ヲシテ死ナントシタ

帆竹ガ太イ

帆筵ガセハイ

手繩ガ丈夫ナカ

船釘ハナシマレマスナ

니물에서서비다힐새를슬피라

비고물에두어라

저근비는바람이잔잔하여야  
殘々

돛지워라

장방에오르자  
檣房

비투고슈질을허여주를씻엇다  
水疾

활새가크다

돛자리좁우니라

동충줄이실현가  
龍層注乙實

삼덩은악기지마옵소  
杉釘



マキハダチウテ  
アユミチカケヨ  
オモカヂ  
トリカヂ  
ヨウソロウ

人 品

眞ノ歴々ハ自慢スルヲハゴザリマセヌ  
輕輩ハ禮義チシラヌ  
近頃ハ商賈共ガ多ウゴザル  
近來ハ歩キ廻テ商ヒナスル人多イ

비밥을 먹거라  
조판을 노와라  
노아가자  
대여가자  
바루가자

츄냥반은 자칭칭행실이 업습네다  
兩班 自稱 行實  
상인은 인사를 모르더라  
常人 人事  
요소는 상고들이 만습네다  
商賈  
글리는 둔니며 장소는 사름이만타  
近來

町人ノ子孫デモオノアル人ヲ撰ンデ職  
ヲ授ケテユソ尤デゴザル

地方官ハ百姓ヲ撫育メコソ尤シヤ

人夫ハイカホドアルカ

兵器等ハアマタユエ一々シリマセヌ

壯丁ヲ拔出シテソヘヨ

手助スル者ガ多ウゴザル

使令ヲ呼ビテ捕ヘテコヨトイヘ

獨リ井ルヤモメデゴザル

寡婦ハ節ヲ守リテ奇特ニゴザル

시정에 자손이라 도직조잇는 사름을 존히여  
市井 子孫 才操

벼슬로 시거야 올소외다  
地方官 百姓 撫恤

군소는 몇치나 잇는고  
軍士

병기들은 여러가지 매 낫낫치 모릅네다  
兵器

장뎡을 빼여 처와라  
壯丁

몽족하는 자가 만소외다  
奉足 者

소령물너 잡아 오라 구닐너라  
使令

홀노 잇는 홀아비올세

파부는 설을 직히니 기특허나  
寡婦 節 奇特



獨デ暮サレテサツ難義デゴザラウ

獨リ在マヌニヨリ寒ウゴザリマセウ

ホサヲ見ラレタカ

ミユニ問テ見ラレヨ

オ客ガ來テ在スカヲ何ナリモ用意セヨ

隱士ハ及第ヲ嫌フテ隱レテ非ル人シヤ

道士ハ山谷ニ住デ道德ノ有ル學者シヤ

天下ノ英雄デゴザル

豪傑ナ人ハ少ウゴザル

狂言師ト云者ハ總テノ藝ヲヨクシマス

외로이 지내오니 죽히민망허올가

혼자 계시니 심심허시오리라

박수를 보았습나

무당의 게 무려 보소

손님이 와 계시니 아무 거시나 장만 허여라

은소는 과거를 슬히여 숨어 잇는 사름이라

도소는 산골에 살고 덕이 잇는 선비니라

천하英雄이로세

호걸에 사름은 적습네다

희스란 거슨 온갖 직조를 잘 허옵데

アヤツリシテ遊ブ様子ガ面白イ

其詳ハトク他ノ師匠ニナラレテ悅シイ

學者ハ弟子ヲヨク教ヘテモノニナルヤ

ウニスル人デゴザル

此間ダ中媒ガ來マシタ

卜者ヲ招イテ占ヒヲサヒテミラレヨ

アノ坊主ヲ捕ヘテ耳サハキマハセ

尼ト云フモノハ女ノ僧デアアル

匠人ハ何ノ匠人何ノ匠人ガアリマスカ

鍛冶匠ヒヨリマス

강대노는 양이 즘이 잇다

자네는 볼서놈의 스승이 되여 쓰니 깃푸다

학구는 데즈를 잘 마르쳐 성취 허게 허는 사름

이로세

요소는 승미가 왓습네다

복자를 청하야 점을 시겨 봅소

저 중놈을 잡아 귀를 새 둘너라

승이란 거슨 게 집중이 오니

장인은 무슨 장인 파 무슨 장식이 잇습는가

덕정장이 도잇습네다



鑄物匠 モノリ鍋鑄匠 モアル

海夫共ガ水ノ中ニテ鯨トル様子ヲ見ヨ

漁夫共ガ魚ヲイカホド捕ツタカ

獵師ガスベテノカリヲシマス

穢多ト云者ハ牛ト犬ヲ殺スモノデアアル

商ナヒト云フモノハスアヒナ問ニ入レ

テコソ致シマス

男ダテト云フ者ハ甚ダ放埒モノデアアル

アノキコリドモニ道ヲ問テミランヨ

年寄ダヂ、デアアルカラダ、カレルナ

夫셋쌍이도잇고 솟장이도잇느니라

海夫들이 물속에서 생복쌍은 양을 보와라

漁夫들이 고기를 얼마나 잡앗션냐

獵手들이 온갖 산양을 허옵네다

穢丁이란 거슨 쇼와 개를 잡는놈이오니

흥정이란 거슨 주름을 스이에너 허야 허옵나

니

알싸란 거슨 심이 패려 현 사람이라

저 초부터 러 길을 무려 보소

나만은 하라 비니 치지마소

バ、ナヨベ

此人ハ性質ガ宜ウゴザル

アノ人ハ性質ガ短氣ニシテ未鍊ナ人シヤ

聖人ガ出ラルレバ麒麟ガ出ル

スグレタ人ガ少ナウゴザル

仙人ガ蓬萊山ニ集テ基ヲウツト云マス

人ハ常ニ仁道ヲ行フテコソヨウゴザル

必ズ勝レタフリセズ慥カニセラレヨ

必ズ事ヲ辨ヘテセラレヨ

アノ人ハ謀計ヲ用ウル人デゴザル

할미볼너라

이 사람은 성식이 솔량허외다

저 사람은 성품이 팍허고 미련 현 사람이라

성인이 나시면麒麟이 나느니

어진 사람이 적습네다

신선이 봉너산에 되여 바둑둔다 허옵네다

사람이 상에 인도를 힘히여야 올수외다

부디능헌테 말고 착실이 허소

부디일을 슬퍼허옵소

저 사람은 썩쓰는 사람이 올시다



豫メ謀コトヲ能クシテ置レマセ  
 此人ハヒドク勇氣ナサウニゴザル  
 強イ者ニ褒美ヲ下サル様ニナサレマセ  
 其許ハ智慧ノ多イ人故エ疎ニセウカ  
 アノ人ハ鈍ニシテ悟リエマセヌ  
 左程マデ聰明ナフガ易カリマセウカ  
 何某ノ子息ハ發明ナト云ヒマス  
 敏捷ニゴザル  
 オノスグレタ人デゴザル  
 他ニ德澤ヲ施シテコソヨウゴザル

미리도모를 잘 하야 두옵쇼셔  
圖謀  
 이 사람은 미오 늘랜가 시푸외다  
 세찬놈을 상주게 허옵소  
賞  
 자네는 지혜만 혼사람이니 어련이 허올가  
智慧  
 저 사람은 둔하여 씨듯지 못하느니  
鈍  
 그대 도록 총명허기 쉬올잇가  
聰明  
 아모게 아들이 총혜하다 허옵네다  
聰慧  
 민첩하외다  
敏捷  
 지조 용헌 사람이로세  
才操  
 님의 게 덕퇴을 씻쳐야 올흐니라  
德澤

我々ハ固ヨリ不精ニメ氣ノ毒ニゴザル  
 貪リノナイ人ハスクナウゴザル  
 アノ様ニ吝嗇ナ人ガ何處ニ遣ハレウカ  
 慾心バカリ出セバ事ガナルカ  
 エ、コレハタクミナ  
 誠ニ妙ナ  
 貌ノ美イ人デゴザル  
 智略ダテシテツカフフリキレルナ  
 エ、夫ハ短氣ナ人物デア  
 必ズ事ヲ委シウセラレ

우리는 근본계으르니 마엽스외다  
根本  
 탐심업는 사람은 십씨아니 허오니  
貪心  
 저리닌 식헌 사람이 어데 쓰리  
吝嗇  
 욕심만 내여 든일이 되느냐  
慾心  
 어 | 그거 시공巧롭다  
工巧  
 과연묘 허거든  
果然妙  
 얼굴이 입분 사람이 올시다  
術  
 술을 내여 부리는테 마소  
體  
 어 | 그거 광헌 인물이로다  
人物  
 부디 일을 자세이 허소  
仔細



アノ人ノ目付ヲ見ルニイカツガマシイ  
アノ者ハ甚姦惡ナカラ恐シウゴザル

東京邊ハ最モ繁華ナサウニゴザル

此人ハ儉約ナカラ允テ事デゴザル

其者ハ姦詐ニシテ遣ハレヌヤツシヤ

人ニハ幸ヒガ第一デアアル

ソナダハ強イ人デアアルカラ必ズ剛毅之

心ヲ慎マレヨ

惡イ人ハ姿ヲ見ルモスキマセヌ

アイツガ歩ム様子ヲ見ルニ甚ダオホド

저사람에 눈을 보니 범남하다

저놈은 심이 간악하니 무섭소외다

동경 땅은 마장번화하니 푸외다

이 사람은 검박하니 오른일이 올세

그자는 간사하야 못부릴놈이라

사람의게는 복이 옷씀이오니

자네는 굳센 사람이기에 부디 강의를 조심

심허소

모진 사람은 쓸도보기 실소외다

저놈이 거름것는 양을 보니 심이 패악하니 시

ウナサウニゴザル

柔カニソ柔和ナ人コソヨウゴザル

オホコレハ拙キモノデアアル

オロカナヲナ云フナ

箇様ナ烈女ガアルカラ珍イデハナイカ

エ、是ハタワイナシデアアル

夫ハ庸劣ニシテ何處ニモ用井所ノナイ

モノデアアル

内ガイコウヒロイ

其許ハ每事ガ懇ロナカラ奇特ニゴザル

푸외다

부드럽고 유화한 사람이야 두소오니

어 | 요것잘망이로다

어리석게 구지마라

이런 녀가 이쓰니 아니 귀한가

어 | 이거시미혹한거시로다

그것시용낼야아모데도 볼데업는거시로

다

속이 뒤오녀녀허다

자네는 민소가 부지런하니 귀특허외다



倦テ晝寢ヲシテ瘡リナフルフサウナ  
 近頃ハ下人共ガキツウ倨慢ニミエマス  
 エ、其人ハ疎畧ナ人デアル  
 ソナタノ癖ハゲニモ奇怪ナ  
 未鍊ナ者ハ速ニ決斷スル事ガナイ  
 馬鹿ハ愧シイワケヲ知ラヌ  
 スカヌヤツ共ハオヒダセ  
 此人ハ事ヲ知タ人デアル

官 爵

皇帝ヲ天下ノ父トナス

皇帝ヲ天下ノ父ト親ニ함  
 皇 帝 天 下 하 에 부 친 으 로 삼 으 니 라

게을너밧좁자기예학질어덧는가시푸다  
 瘡 疾  
 요스이는하인들이미우거만하야되옵네다  
 下 人 倨 慢  
 어그사람소략헌사람이로다  
 疎 畧  
 자네버르시과연고약허다  
 果 然  
 미련헌사람은속기결단하는일이업느니  
 未 鍊 速 決 斷  
 과삭이은붓그리온줄도모르고니  
 八 朔  
 보기시른놈들은쫓쳐보내라  
 이자는일아는사람이로다  
 者

國王ハ一國之王ヲ各々國ヲ守リテゴザ  
 ナサル

人 君 一 國 之 王 各 々 各 々  
 人 君 一 國 之 王 各 々 各 々

君ハ國ノ庶子ト王ノ堂內ノ親ヲ君ニ封

シマス

君 國 은 나 라 서 스 와 왕 의 당 내 지 친 을 봉 군 함 느  
 君 庶 子 王 堂 內 之 親 封 君

東宮ハ世子ノ在マス所ヲ云ヒマス

東 宮 世 子  
 동 궁 은 세 스 게 신 테 를 니 로 옵 네 다

皇太子ハ皇帝ノ嫡子ヲゴザル

皇 太 子 皇 帝 皇 帝  
 황 태 스 는 황 테 큰 아 들 이 오 니

世子ハ王ノ嫡子ヲゴザル

世 子 王 王  
 서 스 는 인 군 에 큰 아 들 이 오 니

皇后ヲ天下ノ母トナス

皇 后 天 下 母 親  
 황 후 를 천 하 모 친 으 로 삼 으 니 라

王妃ハ王ノ妻ヲゴザル

王 妃 王 王  
 왕 비 는 인 군 의 안 히 오 니

國ノ嫡子ヲ大君ニ封シマス

國 嫡 子 大 君 封  
 나 라 덕 스 를 대 군 을 봉 허 옵 네 다



諸侯ハ功臣ヲ封ズルコトヲゴザル  
 宰相ハ一國ノ政事ヲ懇ロニ致シマス  
 御史ガ廻レバ各邑ノ守令ガ愼ミマス  
 勅使ハ威儀ガスマシウゴザル  
 使臣ハ人ヲ撰ンデ遣ハサレマス  
 監司ハ一道ノ方伯シヤト稱シマス  
 兵使ハ兵馬節度使デゴザル  
 水使ヲ水軍節度使ト云フ  
 僉使ヲ僉水軍節制使ト稱シマス  
 守令ハ郡守縣令監ヲ云フ

諸侯 功臣을 봉하미올세  
 宰相 一國政事를 부지런히 하옵네다  
 御史 各邑守令이 조심하옵느니  
 勅使 威儀가 금즉하오니  
 使臣은 사람을 골히여 보내시옵네다  
 監司는 일도 방벽이라 칭하옵느니  
 兵使는 병마節度使오니  
 水使를 水軍節度使라 하고  
 僉使를 僉水軍節制使라 칭하옵느니  
 守令은 郡守縣令監을 니름이라

臣下ガ多ケレモ勝レタ人ガ稀ニゴザル  
 學者ガ夥シウ集リマシタ  
 何ノ職ヲナサレテゴザリマスカ  
 アナタハ何ノ位ニナリテゴザリマスカ  
 勤メハ何ノ勤メヲ過サレマシタカ  
 近來ソナタハ何ノ所業ヲセラルカ  
 何ノ勤メヲ差當タラバ急ニ往カレルカ  
 近比公役ガ多クテタヘラレマセヌ  
 長者ヲ見レバ人ゴトニモテナシマス  
 通事ニイツナリタカ

臣下가 만스오되 착헌 사람이 드무오니  
 先輩가 부지기수로 되왓습네다  
 무슨벼슬허여게시온잇가  
 공은 무슨가즈를 허여게신잇사  
 公 加資  
 所任은 무슨소임을 지내신잇사  
 所任  
 近來자네는 무슨소업을 허는가  
 所業  
 무슨소임을 차녕허엇센디 밧비가오  
 所任 差定  
 요시역스가 만기로 못견디여하네다  
 役事  
 어른을 보면 사람마다 뒤접하옵느니  
 待接  
 통사의언제드런는가  
 通事



醫員ニ脉見セテ藥ナリヒアガリマセ  
 畫工ニ頼ンデ畫ヲ求メテ下ダサレヨ  
 內醫ハ國ノ醫員デア  
 書吏ハ衙前ヲ書吏ト云ヒマス  
 四都ハ江華 松都 水原 廣州ジャ  
 君子ハ小過ヲ見ズト云フ  
 近侍ハ大殿ニ近侍スル人ナ云フ  
 公役ヲ始メテ隙ガアリマセ  
 御隱居王妃モオ年ガ寄ラレテ在シマス  
 御隱居王ハ春秋ガ高ウゴザナザレマス

醫員의 脉 見 藥 이 나 자 시 읍 소  
 畫 工 을 청 허 여 그림 어 터 주 소  
 內 醫 는 나 라 의 원 이 니 라  
 書 吏 는 아 전 을 서 리 라 허 읍 니  
 四 都 는 강 화 송 도 슈 원 광 주 라  
 君 子 는 불 견 소 파 라 허 세 든  
 近 侍 는 대 전 에 근 시 허 는 사 름 을 니 름 이 라  
 公 役 을 시 작 허 여 틈 이 업 습 네 다  
 太 上 王 妃 는 춘 추 가 곱 푸 시 외 다  
 太 上 王 도 늘 거 게 시 니 이 다

皇帝ノ子息ヲ諸王ニ封シマス  
 水使ヲ水軍節度使ト云フ  
 府尹ハ文官デ牧使府使郡守判官縣令縣  
 監察訪等ハ或ハ文官或ハ武官デアリ僉  
 使萬戶權官別將等ハ皆武官デゴザル  
 監牧官ハ馬ヲ掌ドル官員デア  
 天倫

皇 帝 아 들 을 제 왕 을 봉 허 읍 니  
 水 使 수 군 절 도 사 라 허 니  
 府 尹 문 관 이 요 목 사 부 사 군 슈 판 관 현 령 현  
 監 察 訪 등 은 혹 문 관 혹 무 관 이 요 첨 사 만 호 권  
 官 別 將 등 은 다 무 관 이 오 니  
 監 牧 官 은 말 을 지 허 는 관 원 이 라

天倫

父ノガ在マスカ在マサレマセヌカ  
 母ノガ在ススカ在サレマセヌカ  
 父母ニ仕カヘテ孝道ヲ勤ムルガ行狀ノ

祖 父 가 계 신 가 안 이 계 시 온 가  
 祖 母 가 계 신 가 안 이 계 시 온 가  
 父 母 를 섬 기 고 효 도 를 심 써 허 는 거 시 행 실 에



第一デゴザル

他ニ養子ニ往タ人ハ養父母ニ孝行スル

一ガ第一ナリ

長男ハ何年計リニナリタカ

兄様ノオ言葉ヲ聞ニヨリ奇特ニゴザル

弟ガイクタリホドアルカ

親ニ孝養スル兄弟デゴザル

親類ガ多ウゴザルカ

叔父ガ多人數デゴザルカ

叔母ハ五人デゴザリマス

웃씀이오니

님의게 양조간 사람은 양부모의 효성이기 웃  
養子 養父母 孝誠

씀이라

못아들은 멧솔이나 되엇는가

형님의 말을 드르니 귀특히외  
兄 奇特

아우가 멧치나 잇는고

어버이게 효양하는 형테로세  
孝養 兄弟

결네들이 만흐시오

숙부가 여러분이 온가  
叔父

숙모는 다섯분이 올세  
叔母

他ノ姪ヲ戚氏ト云フ

メヒガ先頃來テ逢テ往キマシタ

夫ニ仕ヘル事ハ三綱ノ中ニアルコシヤ

妻ハ百年ヲ偕老シテ五常ニアルコシヤ

女ハ門外ニ出ル事ガナイ

男ハ立身揚名以顯父母ト云フ

娘ハ舅ノ家ニ往ク事ハ常ノ法デアアル

子共ハ幼少ヨリ忠孝ヲ教ヘラレヨ

曾孫ガ多イ故エ貌ヲ皆見知り得マセヌ

嫁ハ吾ガ持タ子ヨリモ猶大事ニゴザル

님의족하를 함씨라 하니라  
族下 戚氏

족하설이거번에와서보고갓슴네다  
族下 去番

지아비를 섬기는 일은 삼강중에잇는니라  
三綱中

안히는 백년을히로하니 오상에잇는 일이라  
百年 偕老 五常

게 집은 문밖세나는 일이 업는 이라  
門

스나히는 남신양명하야이현부모하니라  
立身揚名 以顯父母

설스식은 시집으로가는 거시엿엇헌법이 지  
子息 法

스식은 어려서부터 충효를 마르치쇼  
子息 忠孝

증손이 여러시매얼구를다아지못허옵네다  
曾孫

며느리는 내나 혼스식보담 더귀허오니  
子息 貴



姊ハ家事ヲ勤テスルカラスサマシイ  
 婚ハ他ノ子息デ百年ノ客デゴザル  
 舅ニ孝行ニ仕ヘラレヨ  
 妹ハマダ幼少ニテ嫁入致シエマ  
 セメ  
 姑ハ年寄テ在マサレマス  
 兄嫁様ハ子孫ガ多ウゴザリマス  
 弟嫁ハ若ケレモ萬事ガスグレマス  
 女房ノ兄弟ガ妹聳ヲヒドク取持ナマス  
 相嫁ガ互ニ睦敷故家内ガ和睦シマセウ

맛누의는가사를힘써하니거룩하다  
家事  
 사위는놈의죽식이라백년손이오니  
子息 百年  
 시부를효행으로성기옵소  
孝行  
 손아래누의는아직나히어려서시집가지못  
 하였습네다  
 시어먼남이늘거계시외다  
 큰아지먼남이즈손만당히외다  
子孫滿堂  
 적근아지먼은년소하나범절이거룩하오  
年少 凡節  
 처남이미부를미오디접하옵테다  
妻男 妹夫 待接  
 동세가서로도하하니집안이하목하오리다  
同婿 和睦

縁者ガ各別ニスグレマス  
 婚姻ハ門閥ヲ擇テ致シマス  
 聳入スルモ供ヘル鴈デゴザル  
 嫁年ニナレバ夫ヲ迎ヘマス  
 再縁ハ輕輩ニ多クアル  
 天ノ定シ配匹ナリト云ヒマス  
 旦那ハ父母ノ如キシヤ  
 友ニ交ルニハ信有ルヤウニソ社宜イ  
 家來ガ無狀ナニ付特ミニナリマセヌ  
 奴僕ハ力が強クテ社遣フニキミガヨイ

사돈이미오어지오  
查頭  
 혼인은문벌을줄이여하옵나니  
婚姻 門閥  
 당가갈떠년안하는기러기로세  
당 奠鴈  
 파년되면서방을맞습네다  
파년 書房  
 기가는상놈에혼이잇는니라  
改嫁 常  
 텨년비필이라하옵네다  
天定 配匹  
 상년은부모갓트니라  
上 典 父母  
 벗을사귀거든유신게하여야올셋지  
有信  
 종놈이무상하기예밋씨못하옵네다  
從 無狀  
 산이종은심이세여야부리기시원하지  
從



嫌ハ器量ガ善テ伶俐ニソ社ヨウゴザル  
 ヤトヒモノデモ蔑視サレマスナ  
 本妻ハ奴僕ヲ能クツカヒマス  
 庶子ハ妾ニデキタ子デア  
 義父ト云者ハ義ヲ以テ定メタ父デア  
 養子ハ子ノナイ人ガ養子ヲ求メル  
 子息ヲ早ク儲ケラレテ悦バシウゴザル  
 妻ノ兄弟方ハ萬事ヲ直ホニナサレマス  
 婚姻セヌ娘ヲ處女ト云フ  
 汝ハサキニユケ

계집종은 기자하고 녀니 하야 뜻쓰오니  
從 伶俐  
 고공사리하는 사름이라 도멸시지 마옵소  
雇工 蔑視  
 녀실은 노복을 잘 거느리옵네다  
嫡室 奴僕  
 서스는 접의 게나 온스식이라  
庶子 妾 子息  
 의부란 거손의 로령헌 아비니라  
義父 義定  
 양스는 아들이 업는 사름이 양스를 어드니라  
養子 養子  
 스데를 일씩 두시니 깃썩오  
子弟  
 오라 번님은 미소를 어질게 하시옵네다  
每事  
 성흔 전설을 처녀라 니르느니  
成婚前 處女  
 너는 언저가 거라

君ハ留守シテ井ヲレユ  
 私方ニハ子共ガ五人サリマス  
 孫ガ多ウゴザル  
 吾等ハ國ノ事デ毎日奔走致シマス  
 他ノ人ハ京ニ往テ祿ヲハンゾ高官ヲ勤  
 メテ井マス  
 何某ハ及第ナスルト云ヒマス  
 爰ハ風土ガ惡テ久ク居レヌ處デゴザル  
 アレガ何シニ我ニ無情ニ云ハウカ  
 其少年ガ能ク生レツイタ

그디는 집을 짓기 고잇소  
 내게는 아들이 다섯시잇습네다  
 손스가 여러시오니  
孫子  
 우리들은 나라일로 미일분주허옵네다  
每日奔走  
 다른니는 서울가 녹먹고 곱폰벼슬허엇습네  
祿  
 다  
 아모기는 급테를헌다 하옵네다  
及第  
 여기는 풍토사나와 오래잇씨 못헐곳지올세  
風土  
 제엇지허여내게미몰이구는고  
 그소년이 잘싱겨쇼  
少年 生



朝鮮ハ姓ガ數多有本ト六姓デゴザル  
自然トナルトガヨロシイ

姓ト本ハ始祖ノ在シタ處ヲ云フ言シヤ  
アザナハ名ノ字ノ意ヲ見テ作ル

別號ハ名トアザナヲ作リシ外ニ別ニ作  
リテ呼ビマス

彼ハ前カラ利口ナ者デアル

此者ハ輕輩ナレドモ眞字ト諺文ヲ知テ  
奇特ニゴザル

彼レガ過ヲ改ルト云カ怒ヲ止ラレヨ

조선은 성이 여러 성이 오나 본 데 육성이 오니  
朝鮮 姓 姓 本 六 姓  
절로 되는 일이 뜻다

성파본은 시조게 시든 데를 니른 말이라  
姓 本 始祖  
조는 일홈 뜻을 보와 셔 짓느니라

별호는 일홈 파스지은 외예 별로지 어부르옵  
別號 字 外 別  
네다

저놈은 전부터 슬거운 놈이로다  
前

이놈은 상놈이로되 진셔와 언문을 알고  
常 眞書 諺文 奇特  
허외다

결이 파헌다 허니 노를 굿치소  
脈 改過 怒

汝ガ父ト同年デアル

母ニツイテユク

弟ト似テナル

アノ人タナガ聞エマセヌ

半子ハ婿ヲサシテ云フ言デアル

### 頭 部

頭ヲ冷セバ頭痛ガウケマセヌ

頂キニワゲヲ結ヒマシタ

額ニ疵ガアリマス

頂辻ニ虬ガ子ヲ生付タカラスキノケヨ

네아비와 혼동갑이로다  
同甲

어마니를 썰아 간다

동성파방불허거든  
同生 彷彿

저사람네가 허무허외다

반조는 사위를 두고 니른 말이라  
半子

머리를 크게 하면 두통이 업습는다  
頭痛

땡박기에 샥 토 뺏습네다

니마에 첩이 잇습네다

머리에 석히슬어 쓰니 빗셔 업게 허여라



目ガ明カニゴザル

瞳ガ二ツデゴザル

マブダガ銀杏ノ皮ノヤウニゴザル

目ノマハリガマンマルイ

白玉ニ赤イ努肉ガアリマス

黒玉ガキナウゴザル

努肉ガ少クテ目ガスマシタ

眶毛ノ長イ人ガ少ウゴザル

眉ガ蝶ノ眉ノヤウナ

顔ガツヅリテ黒クテシカンデ井ル

눈이 밝스외다

동즈가 둘이 올세  
瞳子

눈썹씨리온힉썸썸又스외다  
銀杏

눈망울이 등골다

흰즈위에블근뇌육이잇습네다  
子 努肉

거믄즈가 누루외다  
子

뇌육이 적고 눈이 밝스외다  
努肉

속눈썹이 긴 사름이 적습네다

눈썹이 남의 눈썹이 又 더다

눈치얼고 쌍괴연네

顔ガ美シウゴザル

鼻ニツケテ嗅ナカイデミラレヨ

鼻先ニ鼠ガハウテユク

鼻ノ孔ノ毛ヲヌカレヨ

小鼻ガ高クテ相ガヨウゴザル

耳ノ垢ヲ出サレマセ

肝ヲキツウウクカヲ聞憎ウゴザリマス

鼻フクコトヲメツタニスレバ人ガ見テ

キダナウ思ヒマス

耳ガ遠ウテキゼキニゴザル

얼굴이 곱스외다

코에 대고 냄새를 맛타 봄소

코뿔테 쥐가 괴여 간다

코부영에 털을 뽑소

코등이 높푸니 상이 뚫스외다  
相

귀여 지너 옴소

코를 키우고니 득세 실스외다

코플기를 흥부루하면 눈이 보고 더러이 너기

옴너니

귀 먹어 답답허외다  
齧齧



耳ノ輪ガ厚ウテ長壽致サレマセウ

耳ノ下ノ毛ガ白ミマシタ

ウハヒゲヲ袖デフカレヨ

下タ鬚ガ長ウテ恰好ガヨウゴザル

ハウヒゲガ夏ニナレバウルサウゴザル

ハゲアタマハ見トモナウゴザル

喉ガツマリテ言ガ出マセヌ

白髮ガヨケイニハエテカユウゴザル

クナヒゲノ多イ人デゴザル

瞬息間ニ往キ方ガ知レマセヌ

귀싹귀뚝새으니 장수호실 뜻허외다

長壽

귀밧털이 세엿습네다

웃날루슬소리로 닥습소

아리날루시기니 풍신이 돛소외다

風身

구레나룻시녀름이면 툭툭허오

뒤머리는 보기 실습네다

목이 메여 말이 나지 아니호오

흰털이 만이나니 마렵소외다

수염이 만흔 사람이 올시다

鬚髯

눈삼씩일스이에 부지거쳐올식

不知去處

面腫ガ甚シウゴザル

眼疾ガ出マシタ

身 部

身ガ肥エマシタ

骨髓ニ徹シテ忘レラマセヌ

骨ガ太ケレバ力ガ多カラウカ

肌ガ柔ニシテヨウゴザル

人ニ皮肉ト云フ言ハ云ヘトモ皮ト云フ

言ハ云ヒマセヌ

力ガ強イカラ力持ナスルニヨロシイ

면종이 대단허외다  
面腫 大端

안질이 낫니다  
眼疾

몸이 비둔호외다

골수에 비여 낫지 못호옵네다

骨髓

뼈가 굵그면 힘이 만홀가

슬이 부드러움소외다

사람의 게피육이란 말은 허되가 죽이란 말은

皮肉

아니호옵너니

힘이 세니 두노히질호기 못겜지



肩ニカタゲテユカウ

筋ガ少イニヨリ力ガ弱イサウナ

手ニ慥ニ握リテユケ

臂ニ力ガ多イカラ弓射ルコトヲ習フタ

ラバヨクイリマセウ

腕ヲ握リテ俱ニ往マセウ

手ノ指ニ疔ガ出マシタ

親指ニ飯粒ガツイタ

人サシ指ニ付ケテ味ヲキカレヨ

字ヲ書キハ縦引割高々指ノ力ヲゴザル

엇씨예메고가자

심쑈이적으니심이약헌가시푸다  
弱

손에단단이쥐고가거라

팔에심이만흐니활쏘기를닉기면잘쏘오리

라

손목쥐고흐게가옵시

손사락에疔腫덩종이낫습네다

엄지손사락에밥플무덧사

둘재손사락의지거맛복소

글씨빨제너리긋는획은장사락의심이오니  
劃將

へニサシ指デ紅粉ヲツケヨ

小指ノ爪ガ長テ鼻ト耳ノスヲ搔ニ宜イ

脇ノ下ニハサンデユカウ

手ノハラヒロゲラレヨ

手ノ甲ニイボガアル

手ノ爪ガ長イ

手ノ筋ガ横ニ渡リテナルカ

胸ニ滯テ下ラヌカラ何ト致サウカ

乳ニ塊リガ有カラ解テ社ヨウゴザラウ

指ノ節ガフトイ

비재손사락으로연지보로라  
燕脂

식세손툼이기러고와귀속영위비기돏타

넙페세고가자

손바닥을폐옵소

손등의무사마귀잇다

손툼이기다

손삼이마루건너가쓰냐

가슴의체滯하야느리지아느니엇지허올고

젖세몽올이이쓰니푸려야돏소오리

손모디가크거든



背ガカガンダカラノペラレヨ  
 腰ガ痛ムカラ休ンデ往マセウ  
 腹ガフトウゴザル  
 臍ガフトクテフカイ  
 臂ニアタリテイタム  
 膝甲ノ盜賊デゴザル  
 歩ムヲ遠ク歩ミテヒツカガミガ痛ム  
 身ガ肥タカラ背骨ガ見エヌ  
 旦那ノ洗濯スレバ足ノ踵ガ白ムト云升  
 足ガシビレタ

등이 꼬부니 궤옵소  
 허리압푸니 쉬여가시  
 비부로외다  
 비뺨이크고 김구나  
 풀꿈치를 닷치니 압푸다  
 슬갑도적이 올세  
 膝甲盜賊  
 거름을 멀니 거리 왓더니 오곰이 압푸다  
 몸이 슬씨기에 등 무루씨가 아니 되네  
 上典 甸의 설내 하면 발뒤축이 흰다 허옵네다  
 발이 저리다

クルブシノ骨ガ脹テモ走リマス  
 足ノウラガ肥ユレバアルカレマセズ瘦  
 レバヨクアユミマス  
 足ニ豆ガデキテ一寸モ動カレマセヌ  
 足ガ痛イカラタヘイテクレヨ  
 心ガ直ケレバスルヲモ皆尤ニシマス  
 肺經ガ熱シテサウアルサウニゴザル  
 肝火ガ盛ニシテ目ガクラミマス  
 餘リ腹ガ立テ臍ガフルフ  
 或ハ脾胃ガイタミマセウ

복스씨가 부어도 돛습니다  
 발싸당이 슬씨면 거름을 못것고 여위면 잘것  
 습니다  
 발의 티눈이나서 촌보 도움죽이지 못허옵네  
 다리압푸니 두두러주어라  
 마음바르면 하는 일도 다 올게 허옵는니  
 폐경이 열하야 그런가 시푸외다  
 肺經熱  
 간화가 성히서 눈이 어둡스외다  
 肝火盛  
 하분이나서 담이 별니는구나  
 憤  
 或 脾 위가 상허오리  
 或 脾胃傷



胃經ニ滯リガ有テ飲食ノ味ガナイカ  
 肝腸ト云フテモドウン堪ヘマセウカ  
 膀胱ニ濕熱ガシヅミマシタ  
 腎經ガ衰ヘタカラ補藥ヲアカリマセヨ  
 氣運ガチカリデアル  
 血氣ガ多ウゴザル  
 息ヲソトヘツカレヨ  
 息ヲヒカレマセ  
 診察スルニ脈ガイカウ弱ウゴザル  
 休メバヨケレモ身ヲヒドク休メレバ却

위경에 체잇셔 음식이 맛업더냐  
 胃經 滯 飲食  
 간장인들엇지 견디오리  
 肝腸  
 오줌통에 습열이 처젓습네다  
 濕熱  
 신경이 허하니 보약을 자시옵쇼셔  
 腎經 虛 補藥  
 기운이 방성이로다  
 氣運 方盛  
 혈기만 쓰외다  
 血氣  
 숨을내쉬옵소  
 息  
 숨을드리급소  
 息  
 진단 허니 맥이 미우약허외다  
 診脈 脈 弱  
 쉬면 돛거니와 몸을 파히늘니면 도루여 병나  
 休 過 病

テ病ガ出ヤスウゴザル  
 溜息ヲツクガ夫ハドウシタカ  
 人事ヲ修メテ後天命ヲ待ツト云ヒマス  
 夢ハタワコトガ多ホケレドモ邯鄲ノ夢  
 ハ慥ナサウニゴザル  
 汗ガヨケイニ出レバ一身ノ津液ガスケ  
 ルカラヨウゴザリマセヌ  
 唾ヲ必ズ灰吹ニ吐テ壁ニ吐レマスナ  
 涙ハ眞情デ悲ミテ社デルモノデゴザル  
 一瞬千里ト云フコモアル

기쉬우니  
 한숨을치쉬니 그엇썸일이냐  
 修人事後 待天命  
 夢은 거긋일이 만흐나 한단몽은 분명헉가시  
 邯鄲夢 分明  
 푸외다  
 땀이 만히나면 일신에 진익이 싸지니 돛치아  
 一身 津液  
 니허오니  
 춤을부디 춤통의 밧고 브름썸에 밧지마옵소  
 眞情  
 눈물은 진정으로 설어 야나는 거시올네다  
 眞情  
 일순철리란 말이잇다  
 一瞬千里



風邪デ鼻汁が出テドウモ面倒ニゴザル  
 悲シメバ鼻汁ト泪ガイカニ拭フテモ限  
 リ無ク出テ止ミマセヌ  
 聲ハ天下皆同シケレドモ聲デ云フ音ハ  
 違テフシギニゴザル  
 コタマノ應ズル音ハ甚ハヤイ  
 ツバキハ人ノ見ヌヤウニ吐カレヨ  
 ワヤ／＼云テ騒グカラ委シクキユエヌ  
 犬ガ糞ヲ食フ  
 腹ガクダリマス

외감으로 콧물이나니 참아 피롭소외다  
 外感  
 설으면 콧물 눈물이 아모리 씨서 도무한이나  
 無限  
 금치 못허올네다  
 禁  
 소리는 천하다 트되 소리로 허는 말은 다르  
 天下  
 니고이허외다  
 恠異  
 산삭에 마주치는 소리심이 썩르다  
 甚  
 춤은 놀아니 보게 밧툼소  
 蹴별거려요란허니즈세이듯지못헌다  
 擾亂 仔細  
 개가 똥을 먹는다  
 屎을 좃치옵네다 又  
 泄 瀉 飢

小便シテユカウ  
 ヒモシケレバ腹ノ内ニ聲ガシテスクユ  
 エ風ガ入リマス  
 精氣ガ衰ヘタ故エ夢泄スル  
 舌ガミシカイ  
 唇ガアツイ  
 齒ガ白クテ見カケガヨウゴザル  
 股ニ腫物ガデキマシタ  
 胸ヲ襲ハレテ總身ニ汗ガデマシタ  
 五臟ハ心ト肝ト脾ト肺ト腎デアリ

오줌누고 가자  
 시장하면 비속에 소리나셔 허매 부름이 드  
 虛  
 옴니니  
 정기가 쇠흔 타스몽설허느니라  
 精氣 衰 夢泄  
 셔기썩르다  
 입살이 덧겹새든  
 니가 희니 보기 돛소외다  
 솟테 부름이 낫습네다  
 가워 놀터 원몸에 땀이 낫습네다  
 오장은 심과 간과 비와 폐와 신이요  
 五臟 心 肝 脾 肺 腎



六腑ハ膽ト胃ト大腸ト小腸ト膀胱ト三焦デアル

六腑 膽 胃 大腸 小腸 膀胱 三焦

形貌

アノ人ノ形状ヲ見ルニ尋常ノ人デナイヤウナガ誰デアルカ

저사람형상을보니네소사람아닌가시푸니  
누구나  
모양이바르고기울지아니허오  
模樣

模樣ガ眞直ニシテユガミマセヌ

저사람은양반인지거동이좀테사람아닌듯  
兩班 舉動

アノ人ハ歴々デアアルカ舉動ガナホザリ

ナ人デナイサウニ見エマス

相ノヨキ人ハ人毎ニ好キマス

顔ニ皺ガ餘計ニヨリテ年寄タサウナ

상이묘흔사람은사람마다도하하음네다  
뜻테주름이만히자퍼스니늘것는가보냐

健カナカワ若イキハ早ク物ニナリタカ  
スルヤウスガ強イ人サウニゴザル  
強イ人デゴザル

건강하니절머서부터속성하얏는가  
健壯 夙成  
하늘양이강헌사람이올세  
강한사람이로시

體ガ弱イカラ一生補藥ヲ用キマス

신약하니일생보약을쓰옵네다  
身弱 一生補藥

他ニ秀テ奇特ニゴザル

놈의게싸여나니괴특허외다  
奇特

顔チシカメテオ嫌ヒナサルサウナ

공기니슬의여허신가보외다

壯ナ男子家ニ澤山置タカラ氣遣ガナイ

장영을집에만히두니념녀업다  
壯丁 念慮

肥タノハドウヂ養生ヲ能シタ德デ有ウ

슬이씨니아마도도리를잘헌덕인가  
調理 德

餘リ瘦テ在マスカラ飲食ヲ能シテ上ル

너무여위여계시니음식을잘하야잡숫게하  
飲食

ヤウニナサレマセ

시옵쇼셔



顔ガ衰ヘラレマシタ故工見損シマシタ  
 心ナ皆焦スヤウニシテ思案ナサレヨ  
 年ヨリテモ心ハ若ウゴザル  
 若イ人ハ酒色ヲ慎ンデコソヨイ  
 稚子ハ何ノ了簡モナイ  
 此小童ハ勤メテ懇懃ニスルカラサキヂ  
 キ人ニナリマセウ  
 子供ガアバレゴトヲ致シマス  
 此童ベガ能ク生レツキタレモ親ガナイ  
 ト云フカラ惘然ニゴザリマス

夕樵 초취허시매물나보왓습네다  
 口生 음을다마르게하야싱각허옵소  
 늘거도口음은점쓰오니  
 절은사름은酒色을삼가야올으니라  
 어린거손아무셈도업는이라  
 이小童은侍從을부즈리이허니將來사름되  
 오리다  
 兒兒 孩들이졸낙절을허옵네다  
 이兒兒 孩가잘싱겨거니와어버이업다허니不  
 祥祥 허외다

此子ガトクカタツテ笑ヒマス  
 カゲボウシハ人ヲシタフ  
 清ラカデキレイナ  
 目出度キ<sub>一</sub>ガ限ナクテ言葉ガ出マセス  
 善キモノハ撰リ出シテ交ヘヌ様ニセヨ  
 キタナイカラ早くノケヨ  
 醜イカラ目ニ懸ラヌヤウニセヨ  
 垢ナアラヘ  
 ソノアザハイカウフトクテ珍シイ  
 ムセテ困リマス

이<sub>〇</sub>기볼셔나가셔웃습네다  
 그림자는사름을썩르니  
 물그니조출허다  
 아限 림답기한업스니말이나오지아니허외다  
 豆흔거손조려내엇다가석기지말게허라  
 터러우니어서아사라  
 추허니눈의되지말게허여라  
 씨를씨서라  
 그샤마귀는마장크니귀하다  
 북받쳐어려외다



立上リテ楫シナサレヨ  
聲ガカレテキゼキナ

羽族

金鳳釵ヲ頭ニサセ

鳳凰ハ神雀デアルカラ見タイ

鸞鳥ハドウ云フ模様ノ鳥デゴザルカ

翡翠ハ色ガ美シウゴザル

鶴ニ乗タ仙人モアルト云ヒマス

大鵬ハ一日ニ九萬里ヲ往ト云言ガアル

孔雀ノ尾ハ陣笠ニサシマス

이러셔셔음허옵소  
楫  
실음허니답답하다  
失音 沓沓

金鳳釵를머리에쓰즈라

봉황은신작이니보고지고  
鳳凰 神雀

난도는엇던모양한새오릿가  
鸞鳥 模様

비취는빛치곱스외다  
翡翠

학은신연도잇다허옵터이다  
鶴 神仙

대봉은구로구만리를간단말이잇다  
大鵬 九萬里

공작의꼬리는빙거지에셋습네다  
孔雀

鴛鴦一ト番ヒ綠水ニ遊ブ様子ヲ見ヨ

鶯ハ梅ノ花ヲ好ミマス

鸚鵡ハ人ノ口マチナシマス

聾入スルキ鳳ハ無テナラヌ法デゴザル

此鷹ハヨクカヒツケマシタ

フクロフノ聲ハ己レガ名ヲ呼ビマス

隼ハ早イノガ第一デゴザル

ハイダカハ僅カ雀ヒトレ飼テ役ニ立ヌ

鷺ハ何デモ擱ムヲ能スル太ナ鳥シヤ

水鷄ハ色ガ美シウゴザル

원앙은쌍이녹수에노는양보와라  
鴛鴦 雙 綠水 樣

새꼬리는미화를도히허옵네다  
鶯 梅花

잉무는사름입내를허옵네다  
鸚鵡

당가갈새기러기는업지못할법이로세  
聾 法

이매는길을잘드렸습네다

부엉이소리는제일흙을부루옵네다

송골매는늘내기웃뜸이오니

새매는불과참새나잡지갈쓰려뜰데업다  
不過

수리는아무새시나초기를잘허는큰새니라

집오리는빛치곱스외다



白鷺ヨ腹立タ鳥ガ汝ガ白イ色ヲ妬マウ

小鳥ガ群ヲナシテ舞フテユク

タウガンハ家ニ置バ盜賊ヲ辨マヘル

野鴨ハ遠ク舞ヒ水鷄ハ鈍ニシテヨク舞

ヒエマセメ

雨ニ濡タ鷺ハ古ツヅレヲ着タ様ニアル

カモメハ魚ヲ能ク捕テクヒマス

鳩ハ雌雄ガ只管戯ヲ致シマス

鷄ハ時ヲ知ル鳥デ村家ニテ餘計ニ飼フ

年若クテ利口ナ人ヲ京畿ノメキシト云

白鷺 白鷺야성난가마귀가네 흰빛출부러한다

갈가마귀가세를지어느라간다

거위는집에두면도적을슬피느니

들오리는멀니늘고집오리는둔하야잘놀지

못허느니

비마진솔개는헌누덕이넘은것즈트니

졸매기는고기잘잡어먹슴네다

비들기는암수가즈루희롱을허옵느니

독은새를아는새니촌가에서만하기름데다

나히어리고약은사람을경기가투리라허지

鷓鴣ノ油ハヨイ藥ト云ヒマス

ウノトリハ水中ニテ魚ヲ捕ル

鳥ナキ島ノカウムリデア

雀ガ騒グカラ日ガタケタサウニゴザル

鳥ハ十二色ノ聲ヲヌルト云ヒマス

燕ハ三月三日ニ出テキテ九月九日ニ返

ルトイヒマス

鷓ガ大鳥ノ歩クニ就テ往ク様ナリシヤ

鷓鳩ト云フ鳥ハ南京ノ地ニ多イト云フ

穴燕ガ巢ヲ作ルノヲ見ルニ人モ石垣ヲ

사드새의기름은도흔약이라허옵네다

거문오리는물속에서고기를잡으니라

새업는섬에박쥐로구나

참새가지저귀니날이느것는가시푸외다

가마귀는열두가지소리를한다허옵네다

제비는삼월삼일에나와서구월구일에도라

간다허옵네다

백새가황새거름을쏘라가기즈구나

샤고란새는남경쌍에만타하나라

명뱀이집지은것슬보니사람도담을그쳐럼



アノヤウニ築ケバ美シウゴザル

船鳥ガ空中ニ浮ンデ羽ヲタヽク

杜鵑ガ悲シウ鳴テ人ノ心ヲ驚カス

鶉ガ秋收メ頃ハ野ニ下リテキマス

木叩キハ朽タ木ヲタヽク

鶴鶴ハ谷川ノ邊リデ尾ヲ振テ飛ビ廻ル

鶴ト云フ鳥モアリ白鳥ト云フ鳥モアル

卵チカヘス

卵チカヘサセヨ

ヒヨコガ全タウフトツタ

쓰으면고을뜻허외다

비람가비공중에셔서놀개친다  
空中

접동새가슬피우니사름마음을놀랜다

못추르기가추슈새는들애느러웁느니  
秋收

셋터구리는씩은나무를두두리느니

활미새는시내々に셔셔리치고느라동긴다

곧이란새도잇고빅도란새도잇다  
白鳥

알씨온다

알을안겨라

병아리가마티게츄랏다

口齧テツヽクヲヲヨクスル

鷹ハ六月頃羽ヲカヘルト云ヒマス

翼サノ羽デ掃テオケ

鶏ノ蹠合フキ爪デヨクケリマス

巢クフアノ鳥ガドウデヒ子ヲモタウ

アノ松ノ枝ニ巢ヲカケタ

鷹ガ雉ヲケツタニ狩人ガ追フテユク

鳥ガ鳴テ已レガ友ヲ集メル

鳥モ死スルキハ悲シウナク

鳥ニ餌ヲカヘ

부리로좁기를잘허거든

매는뉴월썸깃슬근다허웁네다  
六月

놀개깃스로쓰러노아라

듣기싸올썸톱으로잘츄웁네다

깃드린저새가아마도색기친는가

저솔싸지에깃드렸다

매가뺨을츄니산양꾼이썸츄간다

새가올어서제벗을모흐거니

새도죽을썸는슬피올거니

새를밥먹겨라



雀ガ竹林ニテ噪グカラ日ガ入ルサウナ  
 鶏ガ砂浴ヲシテ埃ガタツ  
 飛デ往フノ鳥ガ山ニ隱レテ往方ガナイ  
 且タニ鵲ガ鳴カラヨイフガアリサウナ  
 大鳥ハ脊モ太ク憎ラシク蛇ヲ喰テ糞ヲ  
 スレバ巢クフタ木ガ皆枯ルト云マス  
 黄鳥ハ鶯ノ類ナレモ身ガ太ウゴザル  
 羽虫ヲトル  
 鷹ハ陽氣ヲ慕フテ廻リマス

交隣須知卷之一 終

츄새가대수풀에서지져귀니히가지는가  
 둡이복음자리치니몬지가니러난다  
 伏吟  
 ㄴ라가는저새가산에막기여간데업다  
 山  
 아침에가치가우니길흔일이이빨뜻하다  
 吉  
 황새는괴도크고모질기로비얇을먹고똥누  
 면깃드린나무가다죽는다허옇네다  
 황도는씩씩리뉴로되몸이크오니  
 黄鳥類  
 깃다듬는다  
 기러기는양기를쫓츠둥기옴네다  
 陽氣

明治十六年三月五日出版御届  
 全 年八月卅日刻成御届

定價 金貳圓四拾錢

原著者 舊對馬藩士 雨 森 東

刪正者 外務御用掛 寶 迫 繁 勝

山口縣周防國熊毛郡 淺江村第八十二番地

福岡縣土族

出版者 白 石 直 道

山口縣長門國赤間關區 田中町百五十番地寄留



